

5/9(월) 대하 25-28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

아마샤와 웃시야는 처음이 좋았던 왕들입니다.

교만을 분기점으로 평화의 치세는 곧 비극으로 치닫습니다.

아마샤는 토라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(25:3-4,8-9).

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거금을 들여 용병을 고용했지만(25:6),
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로 결단합니다.

용병 없이 전쟁에 출전한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(25:11).

승리에 도취된 채 전리품으로 들어온 에돔의 신은

하나님 신앙과 혼합되어 백성들 가운데 퍼집니다(25:14).

교만한 아마샤는 북 왕국과 전쟁을 벌이지만 대패하고(25:19,22).

불모로 잡혀가는 등 수모 끝에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(25: 23-24, 27).

웃시야 역시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함을 누렸으나(26:5),

안팎의 견고함으로 명성을 얻었을 때 교만으로 무너집니다.

웃시야는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(26:16).

그는 결국 나병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(26:21).

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악했습니다(28:2-4).

하나님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손에 유다를 넘기십니다(28:6-8).

앗수르에 원조를 요청하다가 도리어 앗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(28:20).

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처럼 강해지려

다메섹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합니다(28:22-25).

하나님 은혜를 잊고 악과 교만으로 패망한 왕들과 달리

요담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경건하며 성신했습니다(27:2).

화려한 업적이나 긴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.

“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(27:6)”

요담은 여호사밧 이후 처음으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(27:9).

나의 능력과 역할을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?

❶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능력과 공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행하지 있습니까?

❷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며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하 25-28장